

지리적 대상에 대한 주이상스 개념의 적용이 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 고찰

김미혜*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Applying the Jouissance Concept to Geographical Objects to Geography Education

Mihye Kim*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라캉의 주이상스 개념을 지리적 대상에 적용함으로써 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는데 있다. 지리교육은 규범에 순응하고 현실에 적응하도록 하는 심리학에 기반을 두는 것보다, 라캉의 정신분석과의 접목을 통해 인간과 지리적 대상이 대상 a를 공유함에 따라 상호주체성을 가지게 됨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채워 충만한 존재가 되고자 지리적 타자에게서 대상 a를 분별하려는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를 통해 인간은 주이상스를 향유하게 된다. 훔볼트의 침보라소 등반과 관련된 여행일지와 지도를 분석한 결과, 인간이 욕망하는 대상 a라는 지리적 대상의 실체가 '무'의 형태로 구현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지리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지리적 대상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지리적 대상과 윤리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주이상스를 향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이상스가 인간과 지리적 대상을 '존재'로 고양시키는 윤리성을 지닌다는 점은, 지리교육에서 라캉의 관점을 도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지리교육, 주이상스, 대상 a, 윤리성, 상호주체성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geography education by applying Lacan's concept of jouissance to geographical objects. Rather than being based on psychology to conform to norms and adapt to reality, geography education needs to accept that human beings and geographical objects have intersubjectivity as they share objet petit a through grafting with Lacan's psychoanalysis. Humans perform ethical acts to discern objet petit a from geographical objects, and through this, humans enjoy jouissance. As a result of analyzing Humboldt's travel log and map of the case of climbing Chimborazo, it was found that the Real of the geographical objects, which humans desire, is realized in the form of 'nothing'. And by applying this to the field of geography education, it was observed that students enjoy jouissance by establishing an ethical relationship with geographical objects through writing about geographical objects. The fact that jouissance has the ethics of elevating humans and geographical objects to 'Being' can be seen as an important reason to introduce Lacan's perspective in geography education.

Key Words : Geography education, Jouissance, Objet petit a, Ethics, Intersubjectivity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주이상스'라는 라캉의 정신분석 개념을 지

리적 대상에 적용해 봄으로써 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캉의 정신분석은 국내의 타교과 영역에서 십 수년 전부터 연구되어 왔고, 교과교육이 아닌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광주광역시초등학교 교사(Teacher, Gwangju Gwangcheon Elementary School, tail303@hanmail.net)

나 국내 지리교육이나 지리학 분야에서 라캉의 정신분석에 대한 연구물의 출판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영미권을 비롯해 남미권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라캉의 정신분석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리학에 그쳐 있고 지리교육에 대한 연구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라캉의 정신분석은 어느 학문 분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 학문적 양과 깊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마르크스·헤겔·레비스트로스·소쉬르 등 근현대 주요 사상가들의 방대한 철학적 담론을 내재하고 있으며, 지젝·바디우·라클라우·리피르 등 출중한 현대 철학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풍부한 라캉의 이론에 엄청난 해석을 덧붙여 주고 있다. 라캉 정신분석의 가장 큰 특징은 순수 인문학 중 가장 난해하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현 체계를 지탱하는 '근본주의적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이라는 것이다. 라캉의 정신분석은 인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수학·과학·정신의학을 비롯해 영화·예술·문학·언어·교육·종교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라캉의 이론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다루고 세상이 작동되는 방식과 전복적 사유 방식을 다루면서도, 엄밀성과 과학성을 지닌 무수히 많은 정신분석 개념들이 인간의 일상적 삶에 대해 풍부하게 논하며 윤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라캉의 개념들이 일상에서 실용적이지 않으며 간편하게 적용되는 성격의 것들이 아니므로, 라캉의 이론을 차용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교육에서도 라캉이 논의되어야 중대한 이유는 라캉의 정신분석이 지리교육과 접목된다면, 인간과 세상을 다루는 지리교육에 인간과 세상을 윤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유적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캉의 사유는 인간 및 세상의 존재들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부조리한 구조를 폭로하고 세상을 윤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먼저 라캉의 정신분석은 겉으로 봤을 때 문제없어 보이는 체제들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게 하고 균열을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한다. 현대 교육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은 억압적 구조를 내재한다는 데 있다. 지금의 교육은 정당하고 순수한 교과 내용 및 방법론에 의한 것이 아닌, 지배 담론에 기반한 일반적인 정책에 의해 커리큘럼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 체제를 움직이고

장악하는 거대 담론에 학생들을 위치시키고 순응시키기 위한 정치적 관행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교실에서 학생들을 억압하는 권력적 메커니즘이 미묘하게 작동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만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행하는 교육적 규제는 학생 개인의 도덕적 발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학생의 해방과 자유를 통제하는 고도의 숨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의 교육은 학생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함을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은 학생들이 스스로 도달하기 불가능한 교육 목표를 설정해 놓고,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상적인 개념'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Radford, 2012:107).

즉, 학생의 욕망과 지리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이미 배제된 채 거대 담론에 의해 이미 짜여진 상징 체계 내에 교육 주체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체제에서 학생 개인의 윤리성과 지리교육의 윤리성의 확립은 기대하기 힘들다.

지리교육 역시 국가교육과정 총론·사회적 요구·모학문의 내용학 등이 지리교육의 성격 및 목적을 결정짓는 내부 체계로 작용한다. 지리교육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지리적 대상들간의 관계는 지리교육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인문·인간과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지리적 대상과 윤리적인 관계 맺기를 지리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리교육은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사유를 사실상 결여하고 있다. '이해한다·분석한다·수집한다·해석한다·종합한다' 등에 한정된 학습자의 사고력과 행동 방식은 지구상의 지리적 대상들에 대한 구조적인 지식의 확립과 지리적 대상과의 윤리적인 관계 정립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지리적 대상들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구조적 지식을 익히고 지리적 타자와 대등한 관계 맺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윤리성의 함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므로,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을 지리교육에 접목하고자 한다.

아무리 도달하기 어렵고 추상적일지언정 지리적 대상들간의 윤리적인 관계 맺음이라는 지리교육의 목적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 교육 체제에서 이

에 도달할 구체적인 방법이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이성’에 의한 과학적 사고 방식’이라 여기고 있다. 이는 ‘자아 심리학’에서 보는 사회에 잘 적응하는 인간상을 기르기 위한 방법론과 일치하기도 한다. 따라서 윤리성 함양이라는 추상적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 실용성·구체성·적법성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은 지리교육의 목적에 도달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모든 것을 아울러 담고 있는’ 지리교육의 목적을 추구하기에는 기존의 교육 내용과 방법론이 일부의 사고관 및 세계관에 한정되어서 인간을 지리적 존재로 고양시키는 교육적 실천이 어려우므로, 이에 라깡의 정신분석을 지리교육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리교육에서 이성과 과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세계관을 갖는다면 고귀한 성찰성과 충만한 감정을 함양하는 ‘자아(ego)’를 강화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게 되는데, 이는 인간을 ‘자아’에만 한정시켜 인간 존재 자체를 편협하게 상정하는 것이다. 라깡은 인간을 ‘자아’에만 한정시키게 된다면, 이는 인간이 외부의 타자와 대결을 벌이게 되어 평화롭지 못한 구도를 생성한다고 보았다. 자아는 타자를 바라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자신과 타자와의 상호주체적인 관계를 정립하기보다는 자신을 타자와 비교해 자신의 다른 점을 부각시키고 타자와 자신을 분리시켜 더욱더 자신이 타자에 비해 우위를 점유하도록 한다(김미혜·박철웅, 2022:322-327).

자아는 현실세계에서 지향하는 인간 특성의 일부일 뿐이며 외부의 지리적 대상과 평등하지 않는 관계를 정립시키기 때문에, 자아가 아닌 인간 존재의 다른 면모를 고찰해야 인간이 외부의 지리적 대상과 어떤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한편 프로이트는 인간이 합리적 이성’에 의해 행동한다고 보지 않았고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리비도(libido)’라는 신체 내의 성적 에너지라고 보았다. 프로이트를 계승하는 라깡은 프로이트의 의견을 약간 수정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그는 인간 행위의 근본 원인을 프로이트가 말한 성적인 만족을 지향하는 리비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라깡은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이 성적인 요소와는 연관 없는 주이상스라는 향락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여겼다. 이 향락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더라도 가질 수 있는

성격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이상스는 인간이 목숨을 건 희생이 있더라도 세상의 상징(사회규범, 정치체제, 사상 등)을 무너뜨림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는 라깡의 이론을 지리교육에 적용하여 인간(학습자)이라는 존재 자체와 인간(학습자) 행동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의 전환을 통해, 기존에 달성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여겨졌던 지리교육의 목적인 ‘인간과 지리적 대상 간의 상호주체적인 윤리적 관계 정립’에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3가지 세부 주제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리교육은 세계-내-존재를 학습 대상으로 삼는데, 세계-밖-존재(이성과 의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내의 지리적 대상에 대한 방대한 지식들을 규정하고 축적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과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이성과 의식적 사고에만 치우쳐서는 세상의 구조와 이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현재의 지리학습 체제에 라깡의 정신분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라깡 이론의 토대는 인간의 감각 및 이성적 사고 방식으로 인식이 불가능한 비재현적인 사물의 영역(실체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데 있다. 현실세계에서 지리적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지식의 추구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라깡식의 사유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감각과 사고로 분별할 수 없는 지리적 대상의 세계 밖 영역이 세계 내에서 드러나는 방식이 곧 인간 자신의 존재 방식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깡의 정신분석을 지리교육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학습자가 지리적 대상에서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게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학습자가 인식 영역의 밖에 있었던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분별하면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깡의 정신분석은 인간과 지리적 대상을 동등 선상에 둬으로써 인간이 지리적 대상의 세계 내와 세계 밖 영역을 상정하는 것처럼, 학습자인 인간도 세계 내와 세계 밖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세계 내에서의 인간이 육신과 이성 및 감성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라면, 세계 내에서 세계 밖에 있는 주이상스를 획득한다면 인간은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세계 내에서 자신이 정립한 상징과 구조에만 갇혀서 살 수 없다고 여기며 현실의 상징 체계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세계 밖 영

역에 있는 충만한 주이상스를 경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주이상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쉽게 획득하기 힘들기에 적절한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세부 목적은 세상 내의 인간이 세상 밖의 주이상스를 향유하기 위해 세상 밖에서 온 작은 조각인 ‘대상 a’를 지리적 대상과 공유하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지리적 사물이 ‘대상 a’를 공유하는 상호주체성을 맺는 윤리적 과정을 분석하여 지리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인간이 미지의 자연과 마주하였을 때, 인간은 자연을 배경으로 여기며 자신의 실존을 내세우는 낭만주의자가 되거나 자연을 정복하고 활용하려는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인간은 현재 자신이 대자연에 착취하면서도 후손이 착취할 것을 남겨두기 위해, 인간중심적인 자연보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두 번째 세부 목적은 인간이 편안하게 누릴 수 없는 자연의 사나운 영역(세상 내에서 인지하지 못한 세상 밖 영역)을 인간이 마주했을 때, 자연에서 느껴지는 숭고함이 인간의 주이상스와 연결되는 방식을 라캉의 정신분석적 매커니즘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사물을 숭고하게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징적 격자와 잣대를 거두어야 한다. 다른 산과 높이를 비교하거나 산속에서 깎 수 있는 광물의 종류를 비교하거나 하는 시도는 여전히 상징 체계에 갇혀 있는 것으로, 거대한 자연을 상징 체계 밖의 숭고한 사물로 격상시킬 수 없다. 인간이 대자연의 대상 a를 파악할 방법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대자연의 실재인 파괴력에 근접하는 것이다. 이에 지리학자 흠볼트의 침보라소 등반을 사례로 들어 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기로 했다. 당시 최고의 명성을 얻은 학자가 가장 정복하기 힘들다는 자연 침보라소를 정복할지 여부는 현실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흠볼트는 침보라소의 세상 밖 실재와 마주한 경험을 그의 여행일지에 기록한다. 본 연구는 흠볼트의 여행일지를 라캉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대자연과 흠볼트의 상호주체성이 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 흠볼트의 사례를 통해 지리적 사물의 ‘숭고함’을 분별하는 매커니즘을 밝혀보고자 한다.

셋째, 지리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이 지리적 대상과 윤리적인 관계성을 정립할 수 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글쓰기를 통해 지리적 사물의 대상 a를 분별해 내는 방식과 학생들이 지리적 사물과 맺는 관계성을 드러내기 위해 흠볼트와 같이 문학적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글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리적 대상을 재현할 때 학생들이 기존의 관광·소비 등과 같은 담론에 잠식되어 지리적 대상을 물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글쓰기를 통해 지리적 대상의 존재성인 대상 a가 학생 자신과 관련지어 드러나는 방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리적 대상과 윤리적인 공존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를 통해 흠볼트와 지리학습자의 존재 이유가 주이상스의 향유임을 확인하고자 하며, 지리적 대상과의 윤리적인 관계성 정립이 지리교육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리교육에 라캉의 정신분석적 접근이 가능함을 시사하고자 한다.

2. 용어 정의

프랑스어인 ‘주이상스(jouissance)’는 ‘enjoyment’라는 뜻의 영어 단어와 비슷한 의미이지만, 영어에는 없는 성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한국어로는 ‘향락’이라고도 한다(Evans, 1996, 김중주 등 역, 1998:430). 주이상스는 감정·느낌·정동이 아니다. 주이상스를 언어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섬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황홀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의 평범한 삶을 영위하면서 주이상스를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라캉은 향락을 ‘쾌락’과의 대조를 통해 해석하는데, 쾌락은 말 그대로 기쁨이나 즐거움에만 국한되는 뜻을 갖고 있지만, 향락은 고통속에서 오는 즐거움을 의미한다. 앞서 주이상스가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상기한다면, 주이상스 내의 성적인 요소는 흔히 알고 있는 협소한 의미의 성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주이상스가 고통인 이유를 쾌락과 관련지어 찾아보자면, 향락은 ‘쾌락 원칙을 넘어섬’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즉 안전한 쾌락을 추구하는 현실세계의 관념을 붕괴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이상스는 인간의 현실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고통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Evans, 1996, 김중주 등 역, 1998:431).

그렇다면 현실세계에서 즐길만한 안전한 쾌락에는 무

있어 있는가? 권력·돈·애정과 같은 쾌락적 요소들은 인간이 능히 감당할만한 것들이고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다. 그러나 인간은 삶에서 이러한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주이상스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의 줄거리를 정신분석적인 의미를 담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다.

안티고네의 오빠인 폴리네이케스는 왕위를 찬탈한 크레온에게 대항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만다. 새로운 왕 크레온은 안티고네의 오빠인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절대 만지지 말 것과 거두어 장사지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이를 어길시 사형이라는 엄한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크레온이 명령한 규정을 어기고 오빠의 시신에 흙을 뿌려주는 애도를 표시하며 자신만의 장례 의식을 치루었다. 안티고네는 국가의 법을 어김으로써 사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오빠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준 것이다. 이에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법을 어긴 죄로 생매장을 당하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 안티고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안전해질 수 있다는 현실원칙을 어김과 동시에 쾌락을 넘어서는 향락(주이상스)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주이상스는 인간이 단순한 즐거움인 쾌락을 넘어섬으로써 관습적인 현실에 균열을 일으킬 때 생겨나는 것이다. 안티고네는 죽는 고통을 겪었지만 자신의 욕망(오빠의 시신을 거두는 것이 내 할 도리이다)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윤리성을 지님으로써 주이상스(존재가 되는 희열)를 획득하게 되었다.

주이상스는 보통의 현실에서는 추구되기 힘든 ‘즐거움’으로, 현실 세계에서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전복시키거나 어지럽히는 일이 될 만큼 현실에서는 수용이 쉽지 않은 ‘즐거움’이다. 가상 기억에서 어머니와의 합일에 의해 경험했던 주이상스는 현실 세계에서 터부시되는 ‘근친상간’이라는 희한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이었던 프랑스 혁명은 봉건주의 절대왕정이라는 상징을 와해시키고 국민대표와 의회주의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상징을 구축함으로써 최고의 즐거움인 주이상스를 창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리적인 사건에서 보면 신대륙 발견에 이은 노예 및 자원의 이동과 함께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 넘쳐나는 편리한 상품이 주는 즐거움도 이전 자급자족 농경사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주이상스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이상스는 말 그대로 괴로움 없는 즐거움이 라기보다는 고통 속에서 오는 ‘기쁨’을 의미한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버젓이 문제없이 운영되는 상징계를 파괴시키는 처절함에서 오기 때문에 죽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현재의 상징에서 구현되기 힘든 주이상스를 얻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거나 단순한 쾌락만을 쫓지 않는 특성을 가지므로, 현재제의 상징을 균열시키고 새로운 상징을 창조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주이상스는 특정한 영역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리교육 전반에 걸쳐 인간이 스스로를 존재로 고양시키는 윤리적 행위가 결국은 창조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주이상스의 도입은 지리교육이 지식 함양을 바탕으로 하여 가치·태도의 정립이라는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 재고해 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깁의 관점에서 보자면 관습적인 지식의 함양에 치우치는 것보다 가치 및 태도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자신을 비롯한 타자를 위한 창조적인 지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주이상스와 지리교육

1. 세계 밖의 대상 a에 대한 욕망

라깁은 다양한 철학적 이론을 근간에 두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정신분석 이론의 창시하여 기존과 다른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인간 심리의 매커니즘을 밝혀냈다. 기존 심리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인간 행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심리학 분야에 이전과 다른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하는 가장 권위 있는 인물로 거론될 수 있다(Gasparyan, 2014:2).

라깁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의사인 Georges Canguilhem (조르주 칸길렘)의 심리학에 대한 강한 비판에 큰 영감을 받았다. 칸길렘이 1956년에 발표한 ‘심리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강연 내용은 1960년대 라깁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심리학은 자신의 학문을 ‘인간과학’이라고 하지만 칸길렘은 심리학을 두고 ‘가짜과학’이라며 비판했다. 칸길렘에 따르면 심리학은 인간을 사회·기술적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도구적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데, 심리학은 그 대상과 방법론에서 있어서 모호한 입

장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는 심리학을 두고 ‘엄밀하지 못한 철학’, ‘의무사항 없는 윤리’, ‘통제되지 않은 의학’이라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Badiou and Roudinesco, 2012, 현성환 역, 2013:30).

라깡은 정신분석을 진정한 과학이라고 했는데, 라깡이 일컫는 과학은 어떤 대상에 대해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밖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광기’가 세계 내에서 규칙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 구조를 밝히는 것을 과학이라고 보고, 이를 연구하는 정신분석을 진정한 과학으로 여겼다(Badiou and Roudinesco, 2012, 현성환 역, 2013:25). 따라서 라깡은 세계 내에서 우리가 상식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는 의견에 반기를 들며, 특히 인간의 행위를 이성적 사고에 기반한 심리학에서 찾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한다.

라깡은 인간이 완전체가 아닌 ‘결핍(lack)’된 존재라는 것을 우선 전제한다. 라깡이 일컫는 결핍은 본보기가 되는 인물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학습을 바탕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워나가면 된다는 기존의 발달심리학에서 일컫는 ‘결핍’의 의미가 아니다. 라깡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결핍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현실세계에서 결핍을 다 채웠다고 여기는 인간은 ‘환상’에 빠진 것이라고 여겼다.

인간은 원래 자신이 ‘어머니의 몸과 합쳐진 온전한 ‘하녀’였으며 어머니의 모든 것(남근)을 자신이 공유함으로써 주이상스를 소유했던 가상의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상이 아닌 현실에서의 인간은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여기서 아버지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 법이나 규범을 뜻하는 상징이다. 인간은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사회 체제의 상징을 따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합일’을 통해 어머니와 공유했던 남근을 아버지에게 빼앗김에 따라 자신의 남근(팔루스)이 ‘결핍’되었다고 여기게 된다.

Copjec(2003:35-36)은 아이(인간)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두고, 이러한 사건이 아이의 존재에 구멍을 뚫는다고 보았다. 어머니에게 부착되었던 아이의 주이상스가 손실되고, 이러한 손실이 아이의 존재 일부를 고갈시킨다고 본 것이다(Kingsbury, 2011:720).

현실세계의 상징 체계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인간은 어머니를 잃어버림에 따라 더 이상 주이상스를 누릴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의 남근을 잃어버린 인간의

내부에는 ‘결핍’이 자리 잡게 되었다. 현실세계에 올바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남아 있는 주이상스를 말려버려야 하는데, 주이상스를 경험하기 위한 행동은 위협하거나 과잉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라깡의 정신분석에서 상정하는 인간 주체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바로 결핍이다. 이러한 결핍은 인간으로 하여금 외부를 향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욕망(desire)’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이유는 자신이 충만해지기 위한 큰 즐거움인 주이상스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주이상스가 단순히 인간의 본능이나 욕구의 충족이 아니며 현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주이상스를 향유하기 위해 인간의 욕망하는 대상 또한 지극히 모호한 것이다.

인간의 결핍을 채워 주이상스를 경험하게 하는 욕망의 대상을 라깡은 ‘대상 a(objet petit a, 오브제 뿌띠 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지칭하게 된다. 대상 a는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대상 a는 지리적 사물과 타자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감수성이나 욕안으로 분별해 내기 힘들며 언어나 이미지라는 상징으로 표현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외부의 대상 a를 욕망하지만, 대상 a는 구체적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이를 획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인간은 욕망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짐작하듯 인간은 욕망의 대상을 얻으면 만족한다고 여겨지지만, 라깡은 인간이 어떤 특정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행위 자체를 즐긴다고 보았다. 인간이 욕망하는 행위를 무한하게 지속하는 것 자체가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것이다.

표 1은 기존 심리학에 기반한 교육이 라깡의 정신분석에 기반한 교육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깡은 인간이 바라는 구체적인 물질의 획득을 추구하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실교육에 라깡의 이론을 접목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작업일 수도 있으나, 라깡은 오히려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세계 그 자체를 진리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는 이성과 상징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계 밖(실세계, Real)의 ‘그 무엇’이 우리가 사는 세계 내(상징계, 상상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이자 진리

표 1. 심리학에 기반한 교육과 라깡의 정신분석에 기반한 교육의 차이점

	(자아)심리학에 기반한 교육	라깡의 정신분석에 기반한 교육
전제하는 인간상	• 발달이 되지 않은 미숙한 인간	• 결핍(lack)을 내재한 인간
전제하는 세계관	• 상징계와 상상계(실재계에 대한 무지) •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법과 규범이 잘 작동한다면 세계 그 자체는 이상적이고 완벽함.	• 실재계-상징계-상상계 • 어머니의 남근이 존재하는 세계의 외부를 가정함으로써, 세계가 완전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며 잃어버린 남근을 세계 내부에서 분별해야 함.
추구하는 인간상	•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사회성·도덕성을 갖춘 인간 •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 기존 상징체계에 잘 적응하는 인간	•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욕망(desire)하는 인간 • 자신의 욕망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켜 주이상스를 획득하는 인간 • 전에 없던 새로운 상징체계를 추구하는 인간
학습의 목적	• 지리적 사물에 대한 지식 획득과 지리적 타자와의 올바른 관계 정립 • 누구나 욕망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욕망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는 것	• 지리적 대상(사물 및 타자)과 자신을 '존재로 고양함으로써 자신과 지리적 대상이 윤리적 관계를 맺는 것' • 사물을 직접 소유함으로써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행위 자체를 통해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것
학습의 대상	• 세계 내부의 기준으로 밝힐 수 있는 지리적 대상의 속성 •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지리적 대상	• 세계 내부의 기준으로 밝힐 수 없는 지리적 대상(사물과 타자)의 속성 • 가시적으로 분별되지 않는 대상 a
학습의 방법	• 지리적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사실 및 개념을 익히는 것	•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 a'를 지리적 대상(사물과 타자)에게서 분별하는 것

* 출처 : 라깡의 정신분석 이론과 기존 심리학을 대조하여 교육방식의 차이점을 밝힌 저자의 구성.

라고 보았다.

이처럼 인간 행위에 복잡한 매커니즘이 내재하고 있다는 라깡의 정신분석이 기존 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신분석에 기반한 지리교육은 세계 내의 관점으로 지리적 대상(사물과 타자)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이상스를 획득하기 위해 세계 내에서 규정되지 않는 세계 밖의 요소인 '대상 a'를 지리적 대상에서 분별해 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세계 내의 지리적 대상과의 관계 정립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항상 욕망하고, 그 욕망의 대상을 외부의 타자에게서 찾게 된다. 인간은 다른 인간이나 사물을 욕망함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주이상스를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라깡의 이론에서는 외부 환경과 관련 없이 인간 스스로의 내부적 발달로 인해 인간성이 완성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욕망의 대상을 외부의 타자에게서 분별하려고 한다. 인간은 욕망하는 행위를 하긴 하지만, 그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본인 자신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모호한 욕망의 대상인 '대상 a'를 인간은 외부의 타자에게서 찾거나, 또는 타자가 대상 a를 갖고 있다고 여기게 된다.

라깡은 사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감각이나 사고력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표 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라깡은 '실재계'라는 영역에서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지리적 사물의 일부가 있을 것이라는 독창적인 세계관을 창조해냈다. 세계 외부인 실재계에서는 온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사물이 세계 내부인 인간의 상징 세계에서 비취 보면 '알 수 없는 상태'인 대상 a로 드러나게 된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 a는 실재계에서 소유했던 어머니의 남근(팔루스)이다. 주이상스를 경험하게 했던 실재계의 남근은 상징계에서 '알 수 없는 형태'의 대상 a로 변모하게 된다. 잃어버린 남근으로 인해 결핍을 내재한 인간은 현실세계에서 남근이라고 여겨지는 대상 a를 끊임없이 욕망하게 된다.

이처럼 대상 a는 인간과 비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 내의 상징 체제에서는 언어나 이미지로 표현할 수 없기에 대상 a를 지리적 대상에게서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지리적 사물에서 숭고하게 여겨져야 할 대상 a에 '환상'이 덧씌워지면 '욕

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지리적 사물의 숭고함이 섹슈얼리즘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직감하기에, 공교육 분야에서는 최대한 지리적 대상의 에로틱함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고수한다.

인간은 지리적 사물(비인간)이나 지리적 타자(인간)의 진정한 존재성에 대해 알고자 하지만, 결국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식인 높이·크기·질량·색깔·수량·수리적 위치 등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속성만을 찾아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으로는 지리적 대상에 대한 진리를 파악할 수 없고 인간은 영원히 반쪽짜리 존재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지리교육은 지표상의 사물과 인간들의 분포 및 이동과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어우러지는 구조를 밝히는 교과이다. 지리 학습자는 지리적 사물과 타자에 대해 배우면서 학생 자신이 내재한 '존재의 결핍'을 지리적 대상을 욕망함으로써 채우고자 한다. 교과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간 자신의 결핍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통은 우수한 성적·교우관계에서의 인기도·교사의 인정 등을 학생들이 대상 a라고 여기게 된다. 이는 학생이면 누구나 욕망할 만한 것인데, 현 체제에서 경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것들로 숭고함과 거리가 먼 것들이다.

라캉의 정신분석은 윤리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라캉은 인간이라면 소유욕이 있으므로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상을 당연히 쟁취할 수 있다는 '자아심리학'의 입장에 반대한다. 정신분석의 윤리는 지리적 대상에서 '대상 a'를 분별하기 위해 지리적 대상을 숭고함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있다. 이를 통해 지리적 대상의 숭고함에서 인간 자신의 결핍을 메꿔줄 대상 a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은 실제계에서 인간이 어머니의 남근을 공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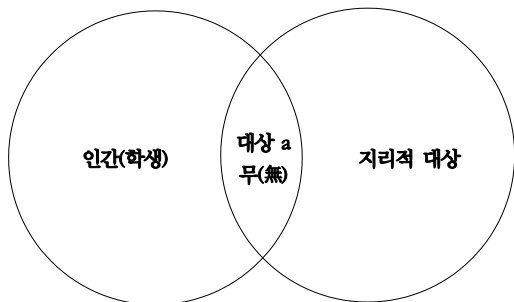


그림 1. 대상 a를 공유하는 인간(학생)과 지리적 대상

* 출처 : 라캉의 이론을 저자가 재구성함

으로써 주이상스를 향유했듯이, 상징계에서 인간(학생)은 지리적 사물의 대상 a를 분별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주이상스를 획득하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상 a는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없기에 인간(학생)은 대상 a를 획득하기 위한 욕망의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

그림 1은 인간의 결핍을 메워 줄 욕망의 대상인 대상 a와 지리적 대상에서 상징적으로 재현되지 않은 영역인 대상 a가 서로 겹쳐짐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로써 대상 a는 학습자인 인간과 지리적 대상이 상호관련성(상호주체성)을 맺도록 하는 매개체가 됨을 알 수 있다. 대상 a는 인간의 경험과 감각으로는 구체적으로 포착될 수 없는 '실재'에 속하는 것이기에, '상징'적 격자를 통해서 지리적 대상을 보는 인간은 지리적 사물과 타자에게서 '알 수 없는' 형체나 느낌을 주는 비재현적인 대상 a를 분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해 있는 곳과 전혀 다른 자연 환경이나 문화를 접한 경우,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파악하지 못한 지리적 대상의 존재를 분별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수 있다.

라캉의 정신분석은 지리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리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겪게 되는 부작용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인간(학습자)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지리적 타자의 대상 a에 대해 환상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는 학교지리에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지리적 사물과 타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대상 a에 대해 황홀감·경외감·공포감·혐오감 등 '환상'에 근간한 감정을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지리적 타자를 두고 결국은 '함께 할 수 없는 외부의 관찰 대상'이라는 실증적 사고 방식의 틀에서 이들을 간주하면서 정신분석에서 우려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타자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정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라캉의 이론은 보통의 수업 방식에서 경계해야 할 사안에 대해 조언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기존 학교수업은 학습자가 갖고 있던 모호함을 제거하고 현실에서 통용되는 분명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함양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습자의 환상 및 과도한 열정과 호기심을 다소 안정시켜야 하고,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침착하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교사는 수업을 시

행해야 한다. 학생은 지리적 대상에게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거나 더 궁금한 것이 있지만, 현 체제의 지식 탐구 방식을 받아들여지면서 자신의 결핍을 채워 줄 대상 a를 지리적 대상에서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되거나 나중에 탐구할 것이라며 잠재적인 것으로 남겨두게 될 우려가 있다.

이를 라깁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상 a를 획득하여 주이상스를 경험함으로써 존재가 되기를 욕망하는 학습자더러, 계속해서 결핍을 안은 채 현 상징체계에 적응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대상 a는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환상을 갖지 말고 학생(인간)이 현실에 안착하도록 독려하게 된다.

II장은 라깁의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기존 심리학과 대비되는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이를 지리교육에 적용시키기 위한 이론적 탐색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지리교육을 통해 지리적 사물과 타자에게서 대상 a를 분별하고 학생 자신에게 결핍을 채우려는 윤리적 학습방법을 라깁의 정신분석의 다양한 개념을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III. 자연의 숭고함과 주이상스

1. 훔볼트의 침보라소 등반과 주이상스의 향유

서구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윤리 사상이자 윤리성의 핵심에 정신분석이 있음을 직시한 Bernard Williams(버나드 윌리엄스, 1929-2003)는 자연주의적 윤리학의 목표를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자연에 대한 기존의 도덕 심리학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윤리성을 정립시키는데 실패해 왔다고 보았다. 이를 두고 윌리엄스는 행동주의·사회생물학·신경심리학과 같은 현대의 삶을 지배하는 심리학을 근간으로 한 ‘근본주의자’들의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사고 방식이 자연에 대한 윤리성 확립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윌리엄스 겐으로는 도덕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엄격한 가치중립적 과학 이론이 문화적 가치가 내재된 삶을 설명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Lear, 2003:1354-1355).

생태주의적 관점을 중시하는 지리교육에서도 윌리엄

스의 주장처럼 인간을 자연의 우위에 두지 않고 인간과 자연을 대등선상에서 보고자 하지만,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라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철학적 사유 방식이 지리교육과정에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자연착취 및 환경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개개인이 분리수거에 적극적이고 탄소배출을 적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교육적 효용성이 없는 냉소성을 갖게 할 수 있다. 지구상 모든 지리적 대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없으니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물건, 인간이 가고 싶은 장소와 공간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지리교육에서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윤리적인 접근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지리학의 아버지’, ‘자연지리학의 아버지’, ‘전문적 야외답사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Alexander von Humboldt(알렉산더 폰 훔볼트, 1769-1859)가 에콰도르의 침보라소(Chimborazo) 등반을 통해 주이상스를 경험한 사례를 통해 자연에 대한 윤리성 정립을 위한 사유 방식을 라깁의 정신분석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훔볼트의 사례를 든 이유는 그가 단순히 지리적 대상을 측정하고 분류하는 과학적인 행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고도·기후·식생 등 다양한 지리적 현상과 대상들을 생태적으로 연결 짓는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의 근대적 과학 탐구 방식을 지리학에 옮겨왔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 그는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사유도 끈질기게 붙들고 매고 있었는데 그는 당시 선진적인 과학적 활동을 하면서도 예술적·문학적인 면모를 잃지 않음으로써 인간 존재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당시 가장 첨예한 과학 정신으로 무장한 인간이었던 훔볼트가 침보라소 산이라는 자연과 마주했을 때, 이제껏 현실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훔볼트 자신의 새로운 면모(균열·공허·공백·대상 a)를 훔볼트가 경험하게 됨을 본 연구의 저자는 그가 주이상스를 향유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과학적 활동을 통해 지리적 사물의 존재를 알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알고자 했다. 즉 훔볼트는 지리적 사물의 대상 a를 통해 자신의 대상 a를 되찾고자 했으나 결론적으로

대상 a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으며 훔볼트는 '공백'을 안고 살아가며 자신이 '균열된 인간임을 분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철학자들인 Oliver Lubrich와 Ottmar Ette가 훔볼트의 여행일지를 분석한 책 「Ueber einen Versuch den Gipfel des Chimborazo zu ersteigen (침보라소 정상 등반 시도에 대하여)」 등을 통해 훔볼트가 침보라소 등반에서 주이상스를 향유하게 되고 자연과 윤리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1802년 6월 23일 훔볼트, Carlos Montúfar, Aimé Bonpland 및 세 명의 안내인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에콰도르의 안데스 산맥에 있는 6,267미터 높이의 침보라소 산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훔볼트의 탐험은 식민주의 정책이나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목적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리 정해진 의제나 정해진 여행 경로가 없는 훔볼트의 방랑벽은 여행과 탐험이라는 낭만주의적 이상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로써 그는 군사 중심 국가인 프로이센·귀족이자 부르주아인 가족의 기대치·정해진 직업과 이성애적 성역할·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훔볼트는 자신이 당연하게 누리던 것과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과학적 활동에 몰두하고자 했으나, 훔볼트의 남미 탐험이 유럽인에게 끼친 영향은 이전에 접근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높이'에 대해 유럽인이 큰 관심을 갖도록 했으며, '높이'를 정복하고 착취하고자 하는 대중의 심리를 촉진했다. 당시로서는 그러한 등반을 시도한 적도 없고 그러한 높이에 도달한 적도 없었으므로 훔볼트의 침보라소 등반 시도는 과학자·예술가·여행자 등 모두의 상상력을 촉발시키기도 했다(Schaumann, 2009:447-448).

훔볼트 일행은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은 등산 장비나 적절한 의복과 호흡 장치도 없이 단순한 신발만 신고 감히 침보라소를 등반했다. 훔볼트의 침보라소 등반은 정상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유럽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어느 누구도 훔볼트만큼 더 높이 올라간 적이 없었기에 그 사건은 유럽인들에게 잠재력(더 높은 곳도 정복이 가능하리라는 의지)을 갖게 하였고, 여행을 마치고 훔볼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유럽에서 영웅으로 묘사되기도 했다(Lubrich and Ette, 2006: 9-10).

훔볼트는 산을 오르는 것 자체를 하나의 실험으로 삼아, 기압계를 사용하고 암석 샘플을 수집하며 해당 지점의 온도를 재는 등 측정과 관찰을 통해 침보라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침보라소에 대해 알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외부의 지리적 대상을 향한 탐구 행위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근육과 신경섬유'에 대한 연구를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측정 장치로 활용하게 된다. 호흡곤란·메스꺼움·신체 구멍을 통한 출혈·두통·현기증 등을 일으키는 고산병 증상을 알게 된 것도 그가 이루어낸 업적 중 하나이다(Lubrich and Ette, 2006:37).

훔볼트가 침보라소를 등반하는 동안 그는 여행일지에 광물학, 지질학 등에 대한 사항들을 주로 기술했으며 여기에는 화산·기상학·지리학·정치학·사회학·역사학·민족학적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행일지에는 악천후·깊은 안개로 인해 제한된 가시성·지루한 측정·원주민 도우미의 배신·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좁은 능선·고산병으로 인한 신체의 쇠락 등 침보라소 등반에 대해 고통스러움을 담고 있다. 모두의 기대 속에 정상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훔볼트는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갔다. 훔볼트는 날마다 여행일지를 작성하는데, 훔볼트가 일지를 작성하는 중 갑자기 쓰는 것을 중단한다. 그는 일지에 'Spal-'(훔볼트가 정확한 철자를 썼다면 독일어로 'Spalte'라는 '분리'를 뜻하는 단어일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내러티브의 절정에서 쓰기를 중단한 것이다. 훔볼트는 크레바스를 뜻하는 '분리'라는 단어 철자를 덜 씀으로써 자신의 지리적 여정에 '절개'를 재현했다. 일지에는 훔볼트가 목적으로 삼거나 예상했던 내러티브 뿐만 아니라 단어의 철자를 덜 쓴 일탈적인 내러티브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Lubrich and Ette, 2006:16-17).

훔볼트와 그의 동료들은 침보라소 정상에 오르려고 했지만 추위·안개·크레바스로 인해 정상을 400여 미터 앞둔 상태에서 하산하게 되었다. 훔볼트의 여행일지는 훔볼트 본인이 생생한 현장을 기록하는 1차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훔볼트의 침보라소 여행일지는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1802년 6월 23일 침보라소 등반 내용이 갑자기 중단된 그 지점에서 특이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여행일지 38쪽까지 산을 오르는 과정을 기술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45쪽부터 후속 내용을 기술하겠다는 표시를 해두었다. 그 이유는 훔볼트 일행이 건너갈 수 없도록 땅이 썩 갈라져 있는 거대한 틈에 직면했기 때문에 정상을 눈앞에 두고 그냥 돌아서야만 했던 것이고, 훔볼트는 그 순간에 일지

기록을 중단해 버렸다(김연신, 2014:81-84).

홉볼트의 글은 크레바스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산 정상에 '빈 공간'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사실 꼭대기에는 오래전에 사라진 돔 모양의 분화구를 제외하고는 탐험할 것이 거의 없다. 홉볼트에게 산의 정상은 '공허함'으로 남겨져 있는데, 홉볼트의 글은 문장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관습적인 내러티브를 거부함으로써 글 자체에 '여백'이 산재하도록 했다(Lubrich and Ette, 2006:40-41).

홉볼트는 침보라스 등반중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을 '글'과 '무(nothing)·공백·균열'을 사용하여 재현했다. 인간은 세상 내에 존재하는 것 중 의식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만을 언어(글자)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홉볼트가 크레바스와 딱딱뜨려 정상을 오르지 못한 것을 언어로 재현하지 못했다는 것은, 침보라스 등반 중 지리적 대상들을 부지런히 기록하여 기존 상징(유럽의 식물과 광물 등에 대한 지식)에 새로운 상징(남아메리카의 식물과 광물 등에 대한 지식)을 덧붙여서 과학적 지식을 풍부하게 추구하고자 했던 홉볼트 자신에게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얼음으로 뒤덮인 안데스 산맥의 등반은 홉볼트의 과학적 진보의 추구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했다. 서구의 '이성의 빛'을 가지고 온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높은 산의 안개와 심연에 혼란스러워하며 험기증을 앓았다. 홉볼트 일행은 인간 신체의 한계와 과학의 한계에 대한 일련의 경험을 제공한 것이다(Lubrich and Ette, 2006:31).

홉볼트는 도달하지 못한 침보라스의 정상을 보면서 '승고함'을 갖게 되었을 것인데, 이는 홉볼트가 정상에 곧 닿을 것 같다는 황홀감에 기반한 것이다. 그는 정상을 바라보면서 눈에서 솟아 나온 듯한 기괴한 암석의 웅장함에 매료되지만, 다소 공포심과 결합된 승고함은 곧 희미해지면서 바로 사라지게 된다. 홉볼트는 고독한 인간이 그의 발아래에 자연적 경관을 깔아놓은 듯한 장면을 연출하는, 즉 자연과 인간을 명확하게 갈라놓는 예술을 추구하지 않는다. 홉볼트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여기며 우리가 아무리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갖는다는 것을 배운다고 해도, 자연이 인간의 통제를 계속해서 벗어나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지점을 갖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홉볼트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연을 재현하기 위해 완성과 숙달의 글쓰기가 아닌 '실패의 글쓰기'를 펼치게 된 것이다(Lubrich and Ette, 2006:57-58).

홉볼트는 자신을 정상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인 크레바스를 두고 그 실패의 순간에 무엇인가를 '등록(eingeschrieben)'하였다. 거대한 크레바스라는 큰 '분열'이 홉볼트 일행의 침보라스 정상 등반을 중단시키게 되었다는 여행일지의 표현 방식은 여행의 중단이라는 표면상의 사실적인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들을 갖는다. 문학적·예술적인 함의가 있음과 동시에 정상 도달이라는 목적과 상관 없는 새로운 의미와 목적이 생기게 된 것이다. 홉볼트의 정상 등반 실패는 그가 행하던 과학성의 실패이지만 이를 문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예술성을 탄생시키므로써, 결국 정상 도달의 실패는 과학성과 예술성이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Lubrich and Ette, 2006:17-18).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침보라스의 정상을 발딘는데 실패했다면 이는 말 그대로 실패한 것이나, 홉볼트는 이러한 상징의 실패(정상 등반의 실패)를 쓰기의 실패(단어 철자를 완전히 쓰는데 실패)로 바꿈에 따라 자연인 침보라스의 '실재'와 인간인 홉볼트 자신의 '실재'를 꼬집어냈다. 현실에서 등반의 실패와 쓰기의 실패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무(nothing)'로써 작용한다. 그러나 홉볼트는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재현적인 '실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단어 철자의 완전체를 어그러뜨림으로써, 즉 '상징의 균열'을 통해 실재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는 안티고네가 왕의 명령인 법(상징)을 어김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관찰시켜 실재를 드러내어 주이상스를 향유했듯이, 홉볼트도 산의 정상을 앞두고 돌아서야 했던 사건을 '무'로 재현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 비재현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실재'를 창출하여 주이상스를 향유한 것이다.

등반을 시작하지 5개월 후인 1802년 11월 25일 알렉산더 홉볼트는 그의 형 빌헬름 홉볼트에게 침보라스의 극적인 상황에 대해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의 단 몇 줄에 고통스러운 상처와 질병·밀려드는 공포심·끔찍한 심연에 빠질 것 같으며 죽음에 임박할 것 같은 심정을 담았다. 이 여행자는 침보라스라는 '괴물 같은 거상'의 장엄함·인상적인 높이·슬프고 우울한 풍경이 섬뜩한 '공허함'을 불러일으킴을 느꼈다. 그는 이 화산에 불이 붙는다면(화산 폭발) 이 거상이 지역 전체를 황폐화시킬 것임을 직감했다(Lubrich and Ette, 2006:18-19). 홉볼트는 침보라스를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관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침보라소라는 자연이 인간인 훔볼트 자신을 바라본다는 느낌을 받았다. 거인 같은 모습의 침보라소가 언젠가는 폭발하여 이 일대를 집어삼킬 듯한 잠재력에 훔볼트가 압도당하는 듯 하다.

당시 19세기의 탐험가들은 미지의 세계를 경험한 극적인 경험을 대중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와 투쟁을 벌이고 영웅적으로 극복한 습막히는 전경을 대중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신세계(신대륙)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세상을 파노라마처럼 전체적으로 개관해서 바라본다는 절정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유럽 중심의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외국에 있는 자연을 과학적으로 조사한다는 명목 아래 지배적인 시선을 갖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과 같다. 훔볼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러한 예상을 피하고자 했으며 그는 침보라소 정상에 프로이센의 깃발을 꽂으려고 간 것이 전혀 아니다. 훔볼트는 모든 경쟁적인 행위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미지의 땅을 점유하려는 의도를 자체시키기 위해 예술과 문학적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그는 ‘무소유’라는 위대한 포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Lubrich and Ette, 2006:39).

훔볼트는 5년간의 남아메리카 탐사를 마치고 자신의 경험이 녹아든 과학적 지식의 책을 여러 권 출판했는데, 침보라소 등반 중 중단된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출판활동과 강연에 대해 대중들은 열렬하게 반응했으나 침보라소 등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고, 등반 중단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지 35년 후인 1837년 훔볼트는 드디어 이에 대한 에세이를 발간하게 되었다. 그는 「Ueber zwei Versuche den Chimborazo zu besteigen(침보라소를 오르기 위한 두 번의 시도)」라는 기이한 제목을 붙여 1837년 에세이를 출간했다(Schaumann, 2009:448-449).

훔볼트는 그의 생애 동안 35년간의 ‘공백’을 통해 침보라소 등반 중단에 대해 ‘알 수 없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5년간의 남미 탐사 후 남은 생애 동안 유럽 일대에서 출판과 강연에 적극적이었던 그가 35년간 합구했던 것은, 사나운 자연의 실재에 맞서 결국 400여 미터 앞에 정상을 두고도 돌아서야 했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에 훔볼트는 자연의 실재와의 공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균열과 공백을 안고 살아간 것으로 보인다.

2. 자연에 대한 구조적 지식의 구축을 통한 주이상스의 향유

그림 2는 훔볼트가 그린 침보라소 지도로, 1807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Essay on the Geography of Plants」에 수록되었다. 이 지도에는 식물이 위치한 그 지점에 식물의 이름이 예술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좌우 양쪽에는 고도에 따라 식물의 종류를 결정짓는 지구의 다양한 요인이 표로 기재되어 있다.

훔볼트는 유럽 중심으로 그린 그 당시의 가상적 세계관의 지도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훔볼트는 유럽과 나머지 세계를 가르는 이원론적인 틀과 평면적 형태 대신 창의적인 형태로 지도를 그리는데, 산의 단면과 해수면의 아래와 위를 그려 넣는다. 유럽을 ‘비교’의 기준점으로 삼아 신세계(남아메리카)를 구세계(유럽)의 거울상으로 묘사하는 대신, 훔볼트의 다이어그램은 안데스의 화산인 코토팍시(Cotopaxi)와 침보라소만을 독점적으로 묘사한다. 그림 2의 침보라소 이미지는 가운데 산 자체 그림과 양쪽 여백에 기록된 정보를 사용하여 초목학·지질학·기상학이 병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상상력과 과학적 사실을 혼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이 엄청나게 가파른 각도로 상승하는 것에 맞춰서 표현된 이미지와 텍스트는 열대 지방의 다양한 기후 및 식생 지대를 인식하게 해준다. 그림 2 이미지의 가장 독창적인 면 중 하나는 훔볼트가 다양한 고도에서 발견하고 분류한 식물들의 이름을 기입한 방식인데, 식물이 위치한 그 지점에 맞춰서 산의 단면 안에 수평, 대각선 및 아치형으로 기입하였다. 식물 이미지와 텍스트로 산을 채우는 훔볼트는 추상적이면서도 미학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 훔볼트는 그가 직접 그리고 기입한 다이어그램인 그림 2의 제목을 ‘Naturgemälde(자연그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훔볼트는 1807년 저서 「Ansichten der Natur(자연의 전망)」의 서문에서 밝히길, 그림 2 ‘Naturgemälde’는 상세한 지역 분석의 종합, 즉 ‘전체적 인상을 전달한다고 했다(Schaumann, 2009: 452-453).

“대규모의 자연을 개관하는 것과, 자연의 힘이 상호 작용하는 증거를 분별하고, 열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즉각적인 것에 한정된 즐거움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 나는 어디에서나 ‘물리적인 자연(physische Natur)’이 인류의 윤리적인 측면과 운명에 영원한 영향력



그림 2. 1805년 훔볼트가 그린 침보라소의 식생 지도(Naturgemälde)

* 출처 : esa(The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 홈페이지

을 끼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Humboldt, 1808:7-8)”

훔볼트가 그의 저서에서 언급한 ‘물리적인 자연’은 침보라소의 ‘실재(Real)’ 그 자체일 것으로 여겨진다. 훔볼트가 경험한 침보라소의 크레바스·좁은 능선·깊은 안개·희박한 공기 등은 인간이 알지 못한 자연의 실재 그 자체이다. 대기·풍속·습도·온도·기압 등 다양한 자연의 실재의 모습은 높이에 따라 식생의 종류를 달리했다. 훔볼트는 고산병·저체온·호흡곤란·낭떠러지의 위험 같은 죽음을 무릅쓴 고통 속에서 ‘자연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종합된 형태로 드러남’이라는 이전 지식 체계(백과사전식 정보 수집 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지식(상징)’을 창조해 냈다. 그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듯 했지만, 크레바스라는 자연의 실재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단어 쓰기와 일지 쓰기를 중단함으로써 ‘무로써 대응했다. 이로써 기존 상징 체계를 재편하여 이전과 다른 상징 체계를 창조하는 윤리성을 발휘함으로써, 또한 비재현적인 실재를 현실에서 ‘무로 분별함으로써 훔볼트

는 주이상스를 향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은 KBS에서 방영된 훔볼트에 관한 영상 자료를 캡처한 것이다. ‘Naturgemälde’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침보라소의 단면에는 고도에 따른 식물들의 명칭이 기입되어 있다. 그리고 좌우에 위치한 표에는 ‘미터로 표시된 고도·고도에 따른 토지 경작·기온·위도에 따른 만년설의 하한선 등이 기재되어 있다. 훔볼트는 단순히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에 따라 인간의 신체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식물이 살 수 있는 고도는 어느 높이까지인가?’ 등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지리적 대상들 간의 연관성에 집중하면서 탐사를 이어갔다(KBS 명작다큐, 2014).

Mattos(2009:143)에 의하면 훔볼트의 ‘Naturgemälde’는 자연과 문화·과학과 예술·미적 묘사와 과학적인 세부 사항을 의식적으로 통합한 것으로써, 자연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참여와 그 창의성이 한껏 고양된 것이며 과학적인 표는 미적이면서도 심지어 윤리적인 특



그림 3. 침보라소 산에 위치한 솔라눔과 산의 고도에 따른 솔라눔의 생장 한계 표시

* 출처 : KBS 명작다큐 **홉볼트 로드 2부**, 2014.06.20, 방영

성을 부여한다고 했다(Schaumann, 2009:453). Laclau(2009)가 언급한 것처럼 홉볼트는 지리적 사물들의 종류 및 위치 등 이미 있던 지식들을 연쇄하여 축적하는 것을 거부하여, 전에 없던 '연결성', '생태성' 등 새로운 상징적 지식을 창조한 윤리성을 보인 것이다.

홉볼트의 여행일지를 보면 그들이 건널 수 없을 만큼의 깊고 넓은 틈, 추위와 산소부족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고도가 높아질수록 등반을 계속할 경우 내장 파열까지 올 것 같은 두려움이 기술되어 있다. 홉볼트는 등반의 이유에 대해 고심했다. 계속해서 등반을 이어갈 경우, 인간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실재(real)'를 갖는 자연의 위험성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홉볼트는 크레바스를 건너 침보라소 정상에 도달하더라도 혹시 그곳에 나침반에 영향을 가할 수 있는 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여행일지에 기술하기도 했다(김연신, 2014:92-94).

홉볼트의 실패에 대한 미학적 체험은 침보라소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추구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가능했다. 홉볼트는 침보라소를 지질학이나 화산학과 같은 세부적인 단일 학문적 관점에서 보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유목민처럼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넘나들었는데, 지질학·지형학·기상학·기후학·광물학 등의 관점에서 산을 바라보고자 했을 뿐 아니라, 제국과 식민지의 경제 구조화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농산물 재배를 위한 고도의 구역 설정을 위해 민족지학적 방법론까지 행하는 등 인문학적 관점까지 동원하여 산을 바라보고자 했다(Lubrich and Ette, 2006:61-62).

홉볼트는 유럽인이라면 누구라도 침보라소의 돌을 소유하고 싶어할 것이라면서, 유럽인들의 물질에 대한 경쟁심을 경계하였다. 그는 침보라소의 존재성 중 현실세

계에서 '비재현적'으로 간주 되는 대상 a의 '승고함'이 누구나 소유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재현적'인 물질성으로 '육화'됨을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남아메리카를 5년간 탐사하면서 측정과 기록을 기본으로 하고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돌맹이 같은 것들을 관찰하고 수집하였다. 홉볼트는 침보라소 등반을 통해 돈이 되는 것들을 눈여겨 보지 않았다. 그는 자연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성에 대한 지식을 창출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의 다양한 특성을 활용한다면, 인간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전보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류애를 추구하였다. 홉볼트가 지리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가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재현 가능한 지리 지식만을 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홉볼트는 침보라소의 비재현적인 측면인 대상 a를 분별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도 대상 a라는 공백이 있음을 알고,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을 인간과 동등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인간도 자연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했다.

라깡의 관점에서 봤을 때 홉볼트가 침보라소를 탐험한 것은 홉볼트가 자신의 결핍을 채워 자신의 존재성을 완전하게 하려는 욕망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는 19세기 주요 상징 체계인 자연과학의 담론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침보라소 등반을 감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홉볼트는 그 당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침보라소의 실재와 맞닥뜨렸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고통을 감내하며 침보라소 정상에 돌을 수집하여 주이상스를 누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홉볼트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침보라소의 실재 영역(크레바스, 깊은 안개, 눈폭풍 등)과 마주하면서 자신이 원하던 또 다른 침보라소의 실재인 '꼭대기의 돌'에 대한 욕망을 접

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현실의 상징계에서 누구나 원하는 욕망의 대상인 '정상의 돌'을 얻지 못하였지만, 등반을 접고 돌아섬으로써 비재현적인 '무(nothing)'를 얻었다. 동시에 흄볼트는 침보라스의 실재에 근접하여 고통 속에서 느끼는 희열, 즉 주이상스를 향유할 수 있었다.

3. 인간과 자연의 상호주체성의 확립

그림 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흄볼트는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을 외부의 지리적 대상인 침보라스를 통해 찾았는데, 그가 침보라스의 실재를 현실에서 '무'로 분별함에 따라 '무'를 내재한 글쓰기를 통해, 인간인 흄볼트와 자연인 침보라스는 '무'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흄볼트는 침보라스라는 지리적 대상과 겹쳐짐으로써(상호주체성을 내재함으로써)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자연과 동등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연에 대한 윤리성을 함양한 것이다. 처음에 흄볼트는 침보라스의 정상에 등극하여 정상의 돌을 획득함에 따라 자신의 존재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흄볼트는 누구나 욕망하는 '물질'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침보라스의 실재를 통해 죽음의 고통을 겪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무'와 '타자'를 내재한 존재)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주이상스를 향유했다고 볼 수 있다.

흄볼트의 등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리교육의 주요 주제인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라캉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간은 자연의 실재를 통해 주이상스를 향유하고자 하며, 이는 인간이 자신의 결핍(무)을 채우기 위해 타자와 상호주체성을 갖게 되는 윤리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흄볼트에게 침보라스는 단지 인간에게 필요한 산림자원을 제공하는 객체가 아니라, 숭고한 영역인 '사물(the Thing)'로 격상되었다가 결과적으로는 '무(nothing)'가 되었다.

라캉은 상상·표상·쾌락을 능가하거나 이를 소멸시킬 위협을 갖는 현상을 언급하기 위해 '사물(독일어 das Di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Kingsbury, 2011:720). 흄볼트는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 a를 산림자원으로 '물화'시키지 않고, 이 세상 상징이 아닌 실재의 영역인 '사물'로 분별하였다. 현실세계에서 흄볼트는 침보라스를 대상 a라는 알 수 없는 '빈 영역'으로 남겨둠으로써 영원히 침보라스와 대상 a를 공유하게 된 것이다. 흄볼트는 누구나 인정하고 욕망하는 '최정상의 돌'이라는 상징을 소유

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의 실재를 통해 주이상스를 경험함으로써 '존재(Being)'로 격상되었다.

그렇다면 상징 체계에서 대상 a로 분별되는 실재의 영역인 사물(the Thing, das Ding)은 심리적 실체, 즉 사람들의 정신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물은 무엇보다도 '상호주체성(Intersubjectivity)'에 기반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Kingsbury, 2011:721).

인간은 죽음이 닥칠 때까지 자신의 욕망을 밀어붙일 때, 고통 속에서 주이상스를 경험할 수 있다. 주이상스는 우리가 사는 현 체계의 상징을 벗어남으로 인해, 즉 상징계의 균열을 통해서 분별되는 실재의 영역이다. 보통 학교지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극한까지 치닫는 교육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것만 다루게 될 경우 학생들이 지리적 대상의 존재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겪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단계를 거친 철학적 발문과 흄볼트와 같은 사례 제시를 통해 우리가 당연시 하는 관념을 뛰어넘어서 지리적 대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지리적 대상에 대해 윤리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리적 대상과 멀찍이 떨어져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우리의 사고 방식에 적합하게 들어맞도록 지리적 대상을 개념화하여 이를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집중하게 되는 지리교육의 현실을 돌아보도록 한다. 물론 정신분석과 연계된 교육이 교사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지리적 대상의 존재 파악과 관련이 없는 지리적 대상의 개념을 암기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더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보통 지리교육에서는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자연을 바라보는 철학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막연한 것이 사실이다. 라캉의 관점으로 보자면, 자연과 인간이 '대상 a'를 공유함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윤리적으로 정립한 것이다. 현실세계에서 대상 a는 아무 의미가 없는 '비어 있는 것'이므로,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원자재·관광·사진 배경 등이라는 '상징'을 비취둔다면 인간과 자연이 '대상 a'를 공유하는 상호주체성의 확립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윤리적 관계 정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흄볼트는 지리교육의 사고관인 자연과 인간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방식을 통해 지리적 대상의 존재성을 밝

히고자 했다. 또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상당히 다양한 계통 분야에서 이론적 배경을 끌어온 것도 지리교육이 추구하는 방법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에서 분별할 수 없는 영역을 '무'의 형태인 '빈 곳'으로 남겨 두는 즉, 철학적이자 미학적 성격을 갖는 정신분석적 사유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외부의 지리적 사물을 통해 욕망하고자 한다. 그러나 욕망의 대상을 '물질로 한정 짓는 경우 자연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기에, 인간과 자연의 대등한 관계 정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이라는 존재에서 '빈 곳'이 있음을 분별하게 된다면, 즉 자신의 욕망하는 대상 a가 현실에서 '무'의 형태임을 분별하게 된다면 이는 이 세계에 '공백'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흄볼트는 세상의 구조에 공백이 있음을 분별하고 이를 '여백이 있는 글쓰기'를 통해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세상의 많은 존재 중 일부인 인간 자신에게도 '빈 곳'이라는 '무'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윤리적 행위이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 이 둘의 존재는 '공백'을 내재하고 있고, 공백이 있음으로써 실제의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자연은 인간의 일부가 되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가 된다. 이로써 인간과 자연은 상호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IV. 주이상스와 지리수업의 실제

1. 글쓰기를 통한 주이상스의 향유

본 연구는 흄볼트의 침보라스 등반 사례를 대상 a와 주이상스라는 정신분석적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고, 여기에서 인간과 자연의 윤리적인 관계성의 형성 방식을 살펴보았다. 인간은 지리적 대상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 일부인 대상 a를 분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 위주의 평범한 오감과 이성을 활용하여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지리적 대상에 대한 현재의 지식 체계를 재편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간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처절한 노력이 요구된다.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연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등 자연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 인간이 자신의 존재 일부를 되찾고자

하는 처절한 윤리성을 발휘할 때, 인간은 이제껏 겪어본 적 없었던 인간 자신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감정을 갖게 된다. 이로써 인간과 자연은 상호주체적인 관계성을 맺음에 따라 인간은 윤리성을 함양하게 되고 동시에 인간과 지리적 대상은 윤리적인 관계성을 맺게 된다. 존재의 잃어버린 일부인 대상 a가 현실에서 '무'가 됨을 분별하고 견디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타자에 대한 윤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이 라깡의 관점에서 본 '학생과 지리적 대상과의 윤리적 관계 맺음'의 논리를 다음과 같은 현장의 지리교육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의 저자는 2021년도 6~7월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G'초등학교 5학년 1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과 지리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지역별 특징을 알아보는 수업을 국어과 기행문 쓰기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지리수업을 통해 국가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의 위치와 특징을 알아보았다. 저자는 학생들이 지리적 사물·지리적 타자·공간·장소와 윤리적인 관계성을 맺도록 하는 방안으로 국어수업과 연계하여 지리적 대상에 대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흄볼트가 침보라스 등반 중 크레바스라는 방해물과 마주하였을 당시를 글로 표현하여 자연의 실재와의 조우를 상징적으로 재현한 것에 영감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여정·견문·감상 체계를 담은 기행문 형식의 글쓰기를 통해 지리적 대상과의 관계 맺음에 '윤리성'이 드러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자신이 경험한 지리적 대상의 존재성에 대해 최대한 알아보도록 독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부모님께 여쭙보기·관련 자료 인터넷으로 찾아보기·관련 도서 읽어보기 등 자신이 경험한 지리적 대상에 대해 최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당시의 감정과 느낌을 기억해 내도록 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다음과 같았다. 그때는 현장에서 지리적 대상을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고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다는 게 많은 학생들의 솔직한 토로였다. 그런데 막상 지리적 대상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하니, 그때 무심코 봤던 지리적 대상의 특징들이 갑자기 떠오르고 당시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생겨난다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야기를

지리적 대상

우리는 진도여행의 첫 목적으로 향했다. 그곳은 울돌목이었다.
 울돌목은 임진왜란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 물살을 보고
 작전을 세워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곳이다. 예전에 진도대교가 울돌목은
 없어 배를 타고 갔을 때 울돌목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진도에 ^{회오리치는}
 갔다고 한다. 이순신 동상과 판옥선을 보았다. 판옥선 내부에는 판옥선 ^{바다이다.}
 과 이순신 장군을 설명하는 글, 태포 모형이 있었다. 스카이워크에서
 울돌목을 더 자세히 보았다. 처음에 보았을 때는 소용돌이가 잘 보이지 않았다.
 스카이워크를 걸 때 무서워서 다리가 약간 떨렸다. 어떤 배가 울돌목
 물살 때문에 가려던 길을 포기하고 후진해 갔다. 다시 한번 소용돌이를 보니 마치
 소용돌이에 빨려들 것 같았다.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을 보고 작전을 세워 13척의 배
 싸움에서 승리하게 대단했다. 울돌목 물살이 너무 세서 일본과의
 놀랐고, 저렇게 물살이 셀 수가 있는 거 신기했다. 스카이워크는
 판옥선을 바닥이 유리도
 조선시대 되어있는 다리이다.
 명종때
 개발한
 전복함이다.
 임진왜란 중
 크게 회복하였으며
 전신으로 발전하였다.

그림 4. 진도 울돌목에 대한 A 학생의 글

* 출처 : 2021.06. 저자의 수업중 학생이 작성한 글

했다. 이 대목에서 학생들이 지리적 대상에 대한 글을 읽고 흡수하는 수동적인 활동과 글을 직접 써보고 재현하는 적극적 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여겨졌다.

실제로 학생들은 자신이 오래 전에 경험한 지리적 대상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치열하게 사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마트폰 사진 속에서 제대로 찍혀 있지 않은 풍경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그때 자신이 보고 듣고 느꼈던 점들을 최대한 기억해 내어 글을 써내려 갔다.

다음 몇몇 학생들의 글을 발췌하여 지리적 대상과의 윤리적 관계의 정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Lubrich와 Ette가 흠볼트의 여행일지를 분석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밝혀냈듯이, 저자 역시 학생들의 글에서 대상 a를 분별하기 위해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들의 지리적 대상에 대해 쓴 글들을 분석하였다.

그림 4는 진도 울돌목을 경험한 학생의 글이다. 이 학

생은 5학년인 당시 4학년 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글을 썼는데, 그만큼 울돌목의 지리적 현상이 해당 학생에게 강렬한 경험으로 남은 것으로 여겨진다. 위 학생은 울돌목에서 역사적인 경관들을 관심 있게 보긴 하였지만, '진도대교가 없어 배를 타고 갔을 때 ... 목숨을 걸고 진도에 갔다고 한다'의 대목에서 울돌목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 임진왜란시 명량대첩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추론해 내고 있다. 이 학생은 울돌목 물살 때문에 후진하는 배를 인상 깊게 보았고, 울돌목 물살의 위력과 그 원인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그림 4의 글을 작성한 학생 A는 울돌목에 대한 자연 현상을 중심으로 전쟁과 죽음이라는 역사적인 서사 체계를 쓰는데 의식을 집중하고 있다. A는 과거에 살았던 인간이 처절하게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 자연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는 지금 현재도 물살 때문에 도망치듯 후진하는 배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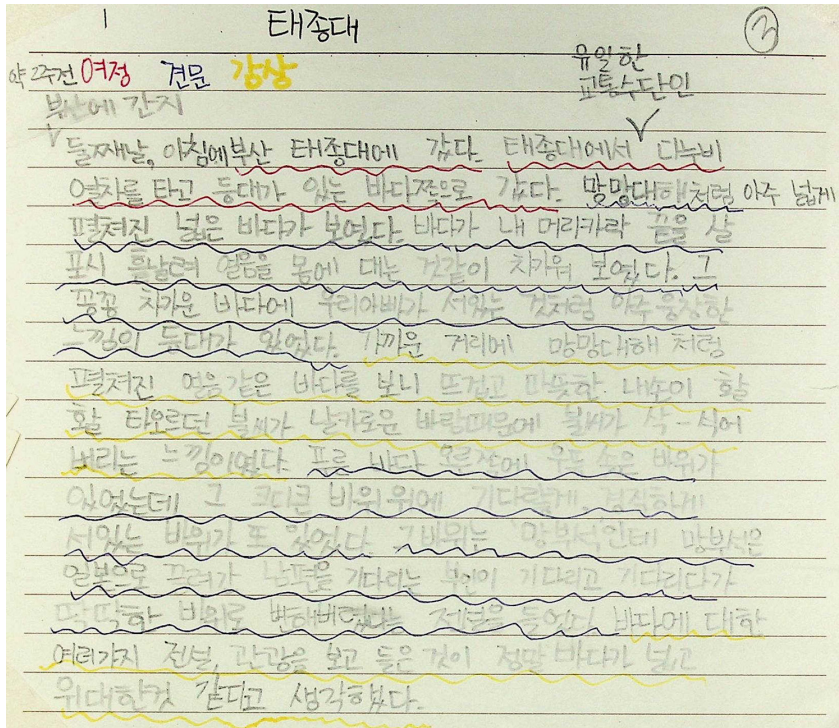


그림 5. 부산 태종대에 대한 B 학생의 글

* 출처 : 2021.06. 저자의 수업중 학생이 작성한 글

서 울돌목이라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분별하고 있는 것 같다. A는 울돌목을 단순 관광지나 사진의 배경으로 여기지 않고, 울돌목의 거센 소용돌이라는 자연 현상이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역사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보고 이로써 대자연(지리적 대상)의 엄청난 위력인 실재를 인식하고 있다. 또한 A는 인간의 한계를 자신의 한계로 여기며 자신의 존재 일부인 대상 a를 찾기 위해 울돌목의 소용돌이에 빨려들 것 같은 상상을 한다. A는 인간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인간 자신에게도 위험한 울돌목의 물살을 전쟁에 활용하는 창조력을 발휘했음을 분별했다. 또한 A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해 오늘날 진도에 전쟁 경관이라는 새로운 공간 문화가 창조되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A는 자연의 실재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인간만이 다른 어떤 장소와도 견줄 수 없는 독특한 차이를 보이는 장소 정체성을 이어나가는 윤리성을 갖게 됨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는 부산 태종대를 간 학생이 동해 바다와 망부석을 본 경험에 대해 쓴 글이다. 이 학생은 평소 글을

논리적이고 주술 관계에 잘 맞춰서 쓰는 학생이다. 그러나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표현하고자 했을 때, 다소 비문 형태로 글을 작성한 것을 볼 수 있다. '바다가 내 머리카락 끝을 살포시 훑날려 얼음을 몸에 대는 것 같이 차가워 보였다'라는 문장에서 바다가 차가운지, 내가 차가운지를 일부로 구분할 수 없게 했고, 바다와 나 사이를 잇는 것이 자신의 머리카락이라고 보았다. 이 학생은 바다와 자신의 구별을 흐리게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이어서 쓰고 있다. '얼음같이 찬 바다를 보니 자신의 따뜻한 손에 깃든 불씨가 사라져버린다'라는 표현에서도 바다와 자신이 겹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또한 바위 위에 우뚝 솟은 '망부석' 바위를 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내리티브가 넓고 위대한 바다에 의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B는 내륙에 위치한 광주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부산의 바다를 단순히 바라보기보다는 바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즉 바다와 자신이 겹쳐지는 상상을 하고 있다. 자궁속의 태아가 양수에 둘러싸여 평온한 상태에 있듯이, B 역시 바다가 자신을 감싸고 있고 지대한 영향력을 줄 만

큼 '넓다'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B는 바다를 자신의 배경으로 보지 않고 자신과 바다가 동등한 선에 놓여져 있어 서로 합쳐질 수 있다고 여기며, 오히려 자기 자신이 바다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는 바다의 상징적인 속성을 나열하기보다는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바다의 비재현적 속성이 자신이 감각과 일치한다고 여기고 있다. B는 머리카락이 차가워지고 손이 시리는 듯한 경험을 단순히 추운 겨울 바다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바다가 생명력을 갖고 자신에게 엄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아마도 B는 바다가 인간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삶을 창조하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B는 인간인 자신의 존재를 바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 자신의 대상 a를 바다와 공유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다와 대상 a를 공유한다고 여기는 B는 자기 자신의 일부인 대상 a의 실체를 항상 바다를 통해 탐구하고 분별하려는 윤리성을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바다를 외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인 자신과 대상 a를 공유하여 자신의 일부라고 여기게 되는, 즉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주체성을 인지하는 윤리적인 태도라고 여겨진다.

2. 주이상스가 지리교육에 제공하는 시사점 고찰

이상 두 학생이 쓴 글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일단 저자는 지리적 대상에 대한 글쓰기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치열하게 그 당시 상황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리적 대상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전과 다른 미묘한 생각이나 감정'을 학생들에게 떠올려보라고 했다. 또한 초등학교생들에게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을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지리적 대상과 마주했던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직시하면서도 지리적 대상과 학생 자신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함께 고려하자고 조언을 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대상 a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라캉의 주이상스와 비슷한 경험을 향유했는지에 대해서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발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이상스는 '정동(affect)'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정동은 인간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외부의 지리적 대상과의

관계성이 신체에 깃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라캉의 주이상스는 현실 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 대상과 인간 자체가 모순적인 균열이 있음을 의식적으로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진도 대교 및 판옥선 모형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들 조형물의 미적 아름다움만을 감상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학생들이 관광이라는 대중적 지리 체계에만 매여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학생이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찾지 못하도록 '인간 소외'를 겪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편안한 방식으로 지리적 대상을 마주한다거나 학생의 관점에만 한정된 감정을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는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절대적으로 소중하다'는 자아심리학에 근간한 사고방식으로 이는 라캉의 정신분석적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결핍을 내재한 학생이 충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리적 사물을 통해 자신의 대상 a를 되찾아야 하는데, 맛있는 음식과 볼거리가 풍부한 경관에 매몰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심리라고 여기고 이에 만족할 경우 학생은 대상 a를 욕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리적 대상은 더 이상 인간이 분별해야 할 '무'를 내재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신체적 욕구와 시각 욕구를 채워주는 외부의 물화된 대상으로만 간주될 수 있다. 음식 맛보기와 경관 엿보기는 세계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교류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미끼이다. 이에 지리적 대상의 가치는 내재적 가치인 '사용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가치'를 더 크게 지님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존재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이다. '어디에 가면 무슨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디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고……'라는 인식은 인간의 내면에서 우리나라의 진솔한 감정이나 생각으로만 순진하게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세계적 자본주의라는 상징계의 가장 거대한 담론 체계에서 연유된 인식으로, 인간의 존재성과 지리적 대상의 존재성을 되찾지 못하도록 현대인들을 '소비'에 집중하게 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윤리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A, B 학생들의 글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지리적 대상을 가시적인 물적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지리적 대상에서 보이지 않는 '실재'를 분별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학생은 지리적 대상을 자신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지리적 대상을 평범하게 물화시키거나 육화시키지 않도록 글을 썼다. 이들은 지리적 대상의 비재현적인 측면에 숭고함을 부여하여 자신의 욕망의 대상이 되게 하였으며, 자신의 대상 a를 지리적 대상을 통해 찾으려고 함으로써 지리적 대상과 윤리적인 관계성을 갖게 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 두 학생은 글쓰기를 통해 물화된 지리적 대상을 보고 즐기는 세계적 자본주의 체계를 거부함으로써, 글을 쓴 순간 주이상스를 향유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인간(학생)을 존재로 격상시키는 인간의 큰 즐거움인 주이상스가 인간과 지리적 대상과의 상호주체성을 통해 획득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상호주체성을 훔볼트의 사례에서 찾아봄으로써 지리교육에 주이상스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지리교육의 윤리성을 확립할 수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인간이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저 소소한 쾌락만을 쫓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리교육이 결국 추구하는 것도 학생이 ‘현실원칙’이나 ‘쾌락원칙’을 너머 향락(주이상스)을 경험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리교육의 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세계평화·세계시민성의 함양·기후위기의 극복 등을 위해서는 안티고네의 숭고한 행위에서 보았듯이 죽음까지 각오하는 인간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다. 하지만 목적인 주이상스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자신과 타자를 위한 일이기, 인간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결핍된 자기 자신이 주이상스를 획득한 충만하고 완전한 ‘존재(being)’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인간이 세상 내 뿐만 아니라 세상 밖까지 걸쳐져 있는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타자와 대상 a를 공유하는 상호주체성이 요구되는데, 이 자체가 인간과 지리적 타자의 윤리적 관계를 확립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리교육이 지구상의 수많은 타자를 다루는 교과이기에 지리교육에 라캉의 정신분석을 적용한다는 것은, 인간 자신 내에 타자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타자와 묵묵히 함께해야 함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혜·박철웅, 2022,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본 지리 교육의 주체와 위상학적 공간,” 한국지리학회지, 11(3), 319-359.
- 김연신, 2014, “알렉산더 폰 훔볼트 여행기의 서술적 특징-침보라소 등반기록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22(1), 79-102.
- Badiou, A. and Roudinesco, E., 2012, Jacques Lacan, passé présent: Dialogue, Paris: Seuil(현성환 역, 2013, 「라캉, 끝나지 않은 혁명」, 파주: 문학동네).
- Copjec, J., 2003, Imagine There's No Woman: Ethics and Sublimation, Cambridge, MIT Press.
- Evans, D., 1996,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London: Routledge(김종주 등 역, 1998, 「라캉 정신분석 사전」, 서울: 인간사랑).
- Gasparyan, D., 2014, Mirror for the other: Problem of the self in continental philosophy (from Hegel to Lacan), *Integrativ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cience*, 48(1), 1-17.
- Humboldt, A., 1808, *Ansichten der Natur*, Frankfurt am Main: Eichborn.
- Kingsbury, P., 2011, The world cup and the national thing on commercial drive, Vancouver,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9, 716-737.
- Laclau, E., 2009, Identity and Hegemony: The Role of Universality in the Constitution of Political Logics, in Butler, J.P., Laclau, E., and Žižek, S., eds.,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s*, London: Verso.
- Lear, J., 2003, The idea of a moral psychology: The impact of psychoanalysis on philosophy in Britai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84(5), 1351-1361.
- Lubrich, O. and Ette, O., 2006, *Ueber einen Versuch den Gipfel des Chimborazo zu ersteigen*, Berlin: Eichborn.
- Mattos, C., 2009, Landscape Painting between Art and Science. in Erickson, R., Font, M., and Schwartz, B., eds., *From the Americas to the Cosmos*, New York: Bildner Center for Western Hemisphere Studies, 141-155.

Schaumann, C., 2009, Who measures the world? Alexander von Humboldt's Chimborazo climb in the literary imagination, *The German Quarterly*, 82(4), 447-468.

Radford, R., 2012, Education and the illusions of emancipation, *Educational Studies in Mathematics*, 80, 101-118.

KBS 명작다큐, 2014년 6월 20일자, “훔볼트 로드 2”

esa, <https://www.esa.org/esablog/2021/01/06/alexander-von-humboldt-for-ecologists/>

교신 : 김미혜, 61920,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266, 광주광천초등학교(이메일: tail303@hanmail.net)

Correspondence: Mihye Kim, 61920, 266 Wolsan-ro, Seo-gu, Gwangju, South Korea, Gwangcheon Elementary School (Email: tail303@hanmail.net)

투고접수일: 2023년 5월 30일

심사완료일: 2023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20일

